

眞正한 丁茶山 研究의 길 (九)

(아울러 茶山論에 나타난 俗學的 見解를 批判함)

天台山人

이처럼 上司의 供口을 □□한 主人 吏胥들은 自己가 防納하는 몇 倍의 黃
斂을 百姓에게 要求하기 때문에 이에 對抗하려는 庶民의 自^紅手段과 里民의
共生的 慣習에 依하여 戶布契가 發生되었다. 茶山의 論述에 依하면(大□만)

「軍丁에게 功布하는 法은 中宗때 □淵에게 始作되었지만 오늘날에 이르러
流波가 浩漫하여 生民 折骨의 病이 되었스니, 이 法을 ^紅안코는 百姓이 다
滅亡할 것이다.....壬辰亂 후에는 軍備를 늘리고저 五軍門을 두고..... 簽
軍收布를 할세 軍人(賤民)은 米로는 十二斗, 布면 二匹, 錢이면 四兩씩 徵收
하다가, 丙子胡亂 후에는 停番者들까지 全部 身布를 받게 되고 賤民을 除한
良民에까지 均役을 바더 軍布를 받게 된 것인데, 良軍收布가 肅宗^補에 三十
萬, 英宗 때에 五十萬이라 하였지만, 아마 朝廷에서 □□한 御史를 보내어 隱
漏 업시 ^紅調査한다면 實際數가 數百萬도 넘을 것이다. 그 數를 잘 알아 徵收
하면 몇 倍를 減하고도 남음이 잇을 것이다. 大抵 軍布라는 「말」부터 不正하
다. 이때 義兵하면서 收布하는 것처럼 矛盾이 잇슬가! 그리하여 胎兒, 狗兒,
杵臼까지도 軍案에 잇는 喜劇的 悲劇을 演出하며 法에는 四父子 軍役엔 그
하나를 免除한다 하고도 八父子까지 徵布하며, 法에는 黃口充丁이나 白骨徵
布는 守令을 闕한다하였지만, 黃口小兒는 勿論이요 地下의 白骨에까지 胥吏
의 魔手が 延及하여 千村萬落에 鬼哭이 啾啾하니, 이러고야 어이 百姓이 살
것인가!」(『牧民心書』 卷二十六, 簽丁肇)라고 하여 極言으로 軍布의 弊害를 말
하고, 이에 對抗하여 成立된 軍布契의 存在를 말한 후 거기에는 또 契房의
弊害가 또 至毒하게 잇다는 것을 말하였다.

(그 大意는)「契房者는 重幣의 根源이요 群奸의 巢窟이라. 契房을 업시하지
못하고는 百事는 할 수가 업다는 것이다. 各洞, 各戶에 잇는 契는 鄉廳, 吏
廳, 軍官廳, □官廳, 官奴廳, □隸廳, 通引廳에 모다 契房이 잇는데, 무릇 契
房의 村은 還穀도 免受되고 軍□도 免受되고 民庫의 所出로서 □役に 廳하기

때문에 錢□ 百兩만 내면 終歲安閑하자는 理想이어늘, 社會的 勢力 업는 賤里棧村은 契가 업기 때문에 富村 富戶는 若十契□을 吏胥에게 먹이면 그만이지만 貧民은 □이어 官役에 □하지 안흐면 안되게 되고, 또 그 萬戶의 役을 千戶의 貧民에게 千戶의 役을 百戶의 貧民에게 바더내기 때문에 一戶의 役이 白錢도 안되는 것은 지금은 數千으로도 不足된다 云云(『牧民心書』 卷十六, 平賦□)이라 하여, 當時 契房의 弊害를 詳細하게 說破한 點은 茶山 以外에는 아마 업슬 것이다.

×

中央權力이 解弛되고 封建機構에 적지 안흔 故障이 생긴 때에 何必 契房이 리요! 그 어느 것이 當時에 勢力 업는 民衆의 生活을 威脅하는 道具 아님이 업지만, 그 中에도 「契房을 樂□之源이라」라고 하여 무엇보담 重要的 點은 그 觀察의 銳□한 곳을 여긔서도 □□하라는 것 뿐 아니라, 契의 經濟史의 重要性을 把握한 그의 政治經濟家的 識見에 놀라운 것이 잇다는 것이다.

×

茶山の 多面的 研究를 通하여 볼 때에 儒學, 農政學, □□學.....이러케 보면 制限 업시 多方面하게 볼 수 잇겠지만은 좀 더 政經論家로서 노픈 評價를 하여야 할 것이고, 政經論 속에서는 土地制度和 契□의 研究에 重點이 잇지 안홀가 한다.

著者が 여긔 「土地」, 「契」만을 論함도 이 一面으로써 그 全貌의 一□을 알 자는데 지나지 못한다.